



# 고려대 안암병원-마크로젠 정밀의학연구센터 개소

## 유전체 기반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

고려대 안암병원이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인 정밀의학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8월 9일 오후 5시 안암병원 5층 정밀의학연구센터에서 ‘고려대 안암병원-마크로젠 정밀의학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 날 개소식은 이기형 안암병원장, 마크로젠 정현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상현 연구부원장, 함병주 정밀의학연구센터장, 김열홍 암센터장, 조윤정 진단검사의학과장, 박경화 중앙혈액내과 교수, 마크로젠 인웅호 이사 등 유관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밀의학은 유전체와 진료정보를 고려한 맞춤치료에 더해 발암 및 질병의 위험을 생활환경, 습관 등 개인의 건강관리로 낮추는 환자 개인별 맞춤형 의학으로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의료의 핵심이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 3월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인 마크로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정보 기반 정밀의학 구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추진해 본격적인 정밀의료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정밀의학 구현은 최근 연구중심병원으로 재지정돼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의 연구 핵심이다. 연구중심병원 4대 핵심 연구 분야 중 가장 으뜸이 바로 유전체 분야로, 고려대 안암병원은 암 환자의 개인별 맞춤치료를 위한 다중 동반진단 유전자 검사패널을 개발하고, 유전체 정보지식 기반의 고속, 초정밀 진단 검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연구역량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정밀의학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암, 심혈관, 뇌질환, 선천성 질환에서 유전체 기반 정밀의학 검사 패 널을 개발하여 다양한 질환의 연구기반으로 확산되어 연구중심병원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예비부모를 위한 유전질환 보인자 검사 판

랜(famplan), 차세대 산전 유전체 검사 서비스 ‘패스트(faest)’, 신생아 유전질환 선별검사 어부바(ABOBA) 등 마크로젠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기반의 다양한 임상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형 안암병원장은 “정밀의학연구센터를 통해 환자 개인의 유전체와 진료정보를 결합한 최적의 치료와 예측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고려대 안암병원의 연구중심병원 플랫폼과 함께 암을 비롯한 난치병 극복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병주 정밀의학연구센터장은 “정밀의학은 환자 뿐 아니라 가족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의 기반이다”라며, “정밀의학센터를 통해 암, 희귀질환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div>고려대의료원</div> <div>의학발전기금기부</div>	16.03.31	의과대학 24회 졸업50주년	₩ 50,000,000	16.05.30	남기천	₩ 1,000,000
	16.03.31	이명주	₩ 4,000,000	16.05.31	의과대학학부모회 (2012입학)	₩ 10,000,000
	16.04.14	김(차)경희	₩ 10,860,000	16.06.03	권명오	₩ 1,000,000
	16.04.08	송동호	₩ 100,000,000	16.06.07	윤송연	₩ 1,000,000
	16.04.19	이인희,손미아	₩ 100,000,000	16.06.07	이하림	₩ 1,000,000
	16.04.27	의대 교우회 장학금	₩ 70,932,005	16.06.07	조수경	₩ 1,000,000
	16.04.15	이수자	₩ 1,136,200	16.06.07	정혜경	₩ 1,000,000
	16.05.10	안중빈	₩ 2,000,000	16.06.21	의과대학학부모회 (2016 입학)	₩ 10,000,000
	16.05.11	이영미	₩ 100,000,000	16.06.30	석경의료재단	₩ 20,000,000
	16.05.12	허걸	₩ 20,000,000	16.07.12	의과대학학부모회	₩ 10,000,000
<div>미주지역 기부방법</div>	16.05.17	황순재	₩ 50,000,000	16.07.19	성재영	₩ 10,000,000
	16.05.25	김현석	₩ 3,300,000	16.07.30	한희영	₩ 286,800
	<div>고려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div>					
	<div>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은 1997년 10월 28일자로 설립되었으며, 미 연방에 등록된 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의무자께서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기부 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div>					
	<div>ADDRESS 15 Autumn Hill Road, Princeton, New Jersey 08540, United States</div>					
	<div>EMAIL info@ifku.net (Attn : Wan-Mo Kang, Chairman 1-609-895-6638</div>					
	<div>wkang@foxrothschild.com)</div>					
	<div>고려대학교 국제재단 홈페이지 <a href="http://www.ifku.net">http://www.ifku.net</a></div>					
	<div>* 기간 : 2016년 03월 31일~2016년 07월 30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div>					



# 동남아로 여름휴가 가세요? 모기 주의하세요!

국내 뎅기열 환자 유입 증가세,  
모기 매개 풍토병에 주의해야



\* 도움말 : 가정의학과 윤진희 교수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뎅기열 환자 수 예측 모형에 따르면, 올해 뎅기열 환자의 국내 유입이 평년과 대비해 3배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름휴가 최대성수기인 8월에 모기가 많은 동남아로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 중에는 피로가 누적되고 기후와 환경이 달라 우리 몸의 면역이 낮아질 수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은 지역에 따라 유행하는 풍토병에 대한 면역체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질병에 걸렸을 때 현지인들보다 심한 증상을 겪을 수 있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없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풍토병의 매개체는 주로 모기와 음식, 사람 간의 감염이다. 모기에 의해 발생하는 풍토병에는 뎅기열과 말라리아, 황열, 지카바이러스 등이 있다. 오염된 음식물에 의한 콜레라와 장티푸스, A형 간염 등도 주의해야한다.

사람 간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은 홍역이나 에이즈, 인플루엔자 등이 대표적이다. 말라리아는 먹는 약을 통해 예방할 수 있고, 황열이나 A형 간염, 홍역 등은 예방 백신을 통해 사전에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뎅기열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및 전신의 통증이 나타나는 열성질환인데, 한국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역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는 물론 호주나 남부 유럽에서도 유행한다. 예방백신이 없어 여행자들이 가장 주의해야할 질병 중 하나다.

가정의학과 윤진희 교수는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관절통 등의 증상을 보일 때에는 즉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며, 특히 소아에서는 무증상감염이 흔하지만, 뎅기열의 위험한 합병증인 뎅기출혈열은 주로 11세 이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할 때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진희 교수는 “뎅기열을 전파하는 모기는 주로 도시지역에 서식하며,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여행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밝은 색 옷으로 긴 소매, 긴 바지를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강화는 것도 여행지에서의 질병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피부의 작은 상처도 긁고 방치하면, 봉와직염

덥고 습한 여름철에 가장 발병률 높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괴사,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이어져

봉와직염, 혹은 봉소염, 연조직염은 피부 표면에 생긴 작은 상처를 통해 들어온 세균이 진피와 연조직에까지 염증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원래 상처가 있던 곳에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홍반이 생기며, 상처 부위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동반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온몸에 오한이 생기고 부종 및 통증이 생기며, 물집이 생기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색이 자주색으로 변하면서 피부 조직이 썩는 괴사가 발생해 사망률이 높은 괴사근막염으로 진행된다.

봉와직염은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 경구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로 쉽게 치료된다. 하지만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괴사, 패혈성 쇼크,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할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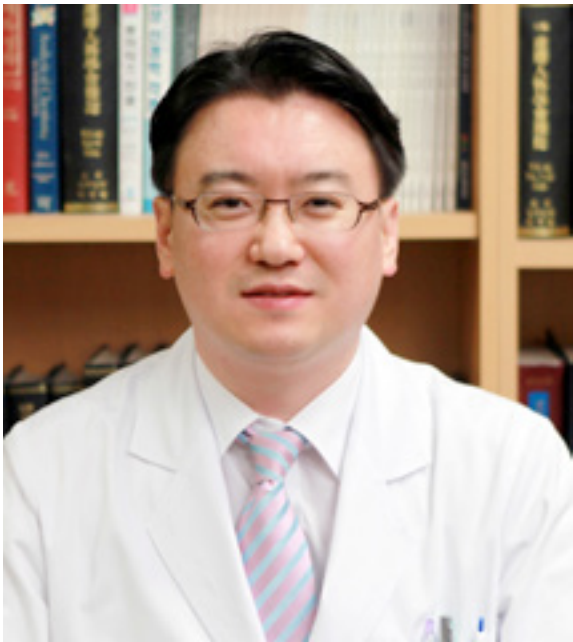
봉와직염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발, 다리, 얼굴 등에 많이 발생한다. 무좀 환자의 경우 발가락 사이에 환부를 통해 더욱 쉽게 감염되며, 평소 팔과 다리에 부종이 있는 환자에게도 흔히 발생한다. 특히 모기 물린 부위를 긁거나 침을 바르는 행위도 봉와직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봉와직염은 여름철에 가장 발병률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만1000명이었던 환자 수가, 가장 덥고 습한 8월에는 14만4000명까지 치솟았다. 여름에 연조직염이 흔한 이유는 높은 습도 때문에 황색포도알균이나 사슬알균 등의 원인균 번식이 쉬워 상처의 염증이 봉와직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염내과 윤영경 교수는 “여름철에는 피부 손상을 최대한 줄이고 무좀, 짓무름, 부종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해 다른 부위로 감염병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 도움말 : 감염내과 윤영경 교수





# 조산 방지를 위한 프로게스테론 요법

## 국내 연구진에 의해 안전성 규명

고대안암 홍순철,  
안기훈 교수팀 메타분석 연구,  
신생아 사망률과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국제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10명중에 1명이상, 전세 계적으로 한해 1,500만명의 신생아가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으로 태어난다. 문제는 조산이 신생아 사망원인의 6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매년 100만명의 어린이 들이 조산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생존한 아이 중 상당 수는 평생의 장애를 갖게 된다.

조산을 막기위해 임상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요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연구는 없었으며, 미국FDA에서 프로게스테론 요법이 조산 방지효과가 있지만 일부 합성프로게스틴이 유산 및 사산 율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는 등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산부인과 홍순철, 안기훈 교수 연구팀이 메타분석을 통해 프로게스테론 주사 및 질정이 신생아 사망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프로게스테론 요법의 신생아사망에 관련한 안전성이 증명됐다.

국제학술지 Journal of Perinatal Medicin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예방적 프로게스테론 치료가 신생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메타분석으로 신생아 11,188명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다. 연구 결과, 조산을 예방하기위한 프로게스테론 사용은 성분이 천연이든 합성이든, 단태아든 쌍둥이든 신생아 사망률을 증가시키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안 교수는 “그동안 조산 방지효과를 위해 사용해왔지만 안전성 확립이 불완전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연구로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신생아사망률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태아사망률 등 여러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성이 증명되었다고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신초기에 합성프로게스틴제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심장과 사지, 생식기 등에 발생하는 선천성기형의 연관성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초기에는 산부인과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사용을 판단해야 한다.

안기훈 교수는 “프로게스테론 요법은 환자에 대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하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치료의 잠재적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산모와 태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체중 조절과 적절한 영양공급 아토피피부염 예방에 도움

중증 아토피피부염 앓고 있는 환자,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비만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2.6배 낮아

소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피부염이 최근 비만을 억제하는 렙틴과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센터 유영, 서성철 교수팀(서성철 · 윤원석 · 박상희 · 정지태 · 유영 교수)이 6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학교 2,109명을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비만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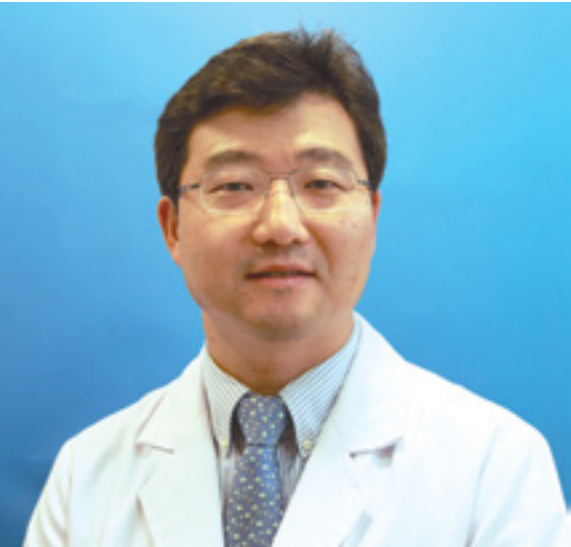
연구팀은 2,109명의 ‘렙틴’ 호르몬 혈중 수치를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0.53 ng/mL)가 그렇지 않은 아이(0.86 ng/mL)보다 1.62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비만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더 낮게 분비되는 것이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군의 렙틴 혈중 농도가 약 0.33 ng/mL, 경증 환자군의 농도가 0.77 ng/mL로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심하면 심 할수록 혈중 렙틴 수치가 2.6배 낮게 나타났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해 체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 면역학적 활성으로 제안되는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되는데, 렙틴이 부족하면 사람의 식욕을 부추겨 비만을 초래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보건센터 유영, 서성철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적절한 관리가 매우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꾸준한 체중 조절과 적절한 영양공급 등이 아토피피부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향후 비만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과의 보다 상세한 원인 관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문(렙틴과 아토피피부염 연관성-Leptin and Atopic Dermatiti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은 국제 저널 (JAAI)에 최근 게재됐다.



## 열대야 ‘꿀잠’ 자려면?... “잠들고 깨기 2시간 전 냉방하라”

낮잠 자지 말고 취침 3시간 전엔 야식 피해야

간혹 시원하게 장맛비가 쏟아지기는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 열대야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사람들이 많다.

열대야에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높은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 등 신체기관의 수축과 확장이 일어나는 등 몸이 일하는 것이다.

열대야 속 잠을 깊이 자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몸이 고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침실 온도를 23~25도까지 낮춰주면 좀 더 편하게 잠들 수 있지만, 전기료 걱정 때문에 가정에서 밤새 에어컨을 켜놓고 자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경우 잠들기 전과 일어나기 전 2시간가량만 에어컨을 가동해도 도움이 된다.

수면은 보통 얇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빠졌다가 다시 얇은 잠 상태로 돌아와 일어나게 된다. 보통 자려고 누운 이후와 일어나기 전 2시간가량은 상대적으로 깨기 쉬운 얇은 잠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

잠을 달아나게 하는 습관이나 잘못 알려진 수면법을 피하는 것도 열대야 속 '꿀잠'을 자는 방법이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음식은 없다. 취침 전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않은 공복 상태가 수면에 가장 좋다.

잠을 자려면 혈당, 심박수, 체온이 내려가 안정된 상태가 돼야 하는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깨어나게 된다. 음식을 먹어도 잠을 잘 잔다는 사람들도 뇌가 느끼지 못할 뿐 몸은 반응하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몸이 스스로 자야 할 때를 알 수 있도록 신체 리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현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 몸은 낮과 밤으로 이뤄진 하루에 대한 리듬을 갖고 있다"며 "몸이 잠들고 싶어하는 시간을 밤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낮잠을 자면 정작 잠들어야 할 밤에는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열대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소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낮에는 적당한량의 햇빛 노출과 활동을 하고 밤에는 어두운 조명과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세계로 가는 고려대 안암병원



### 문화한류에서 의료한류로, 베트남에 한국의료 우수성알려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의료홍보회 ‘Medical Korea 2016 in Vietnam’ 행사에 참여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빠른 경제성장과 의료관광 수요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에서 개최됐으며, 현지 의료기관, 정부관계자, 여행사, 에이전시 등이 대거 참여했다.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한국 의료기관과 파트너링을 원하는 현지 병원 및 에이전시들의 많은 문의와 협력 제의가 이어졌다.



### 고대 안암병원 의료진, 카자흐스탄에서 펼친 인술

고려대 안암병원이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비아나 메디컬센터에서 의료진료회를 개최하고 무료진료를 통해 100여명의 환자들에게 건강과 치유의 손길을 전하며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의료진료회에서 비뇨기과 강석호 교수, 산부인과 이상훈 교수,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 등 안암병원 의료진이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유방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카자흐스탄 환자들을 100여명을 진료했다.

정확한 진단 및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추후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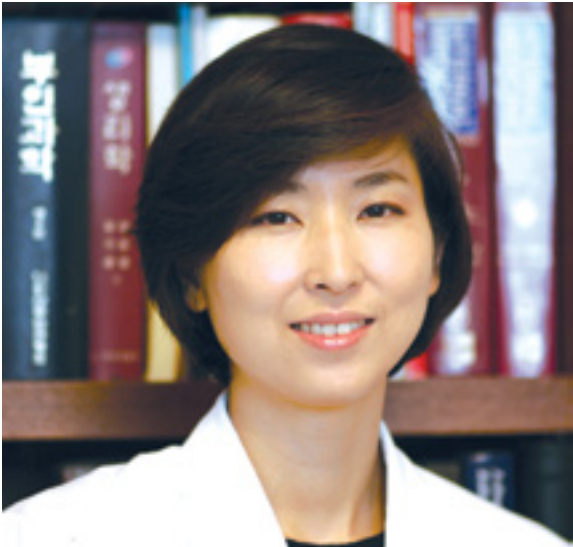
### 아프리카 말라위 의료봉사에 표인봉씨 학용품 기증

고려대 안암병원이 표인봉 씨로부터 아프리카 말라위 아이들을 위한 운동기구와 학용품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을 통해 받은 물품은 7월 25일 부터 한주동안 진행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사회봉사단과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말라위 의료봉사를 통해 만나는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말라위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응원의 선물이다.

이번 말라위 의료봉사는 핵의학과 최재걸 교수,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이정화 약사, 황남주 간호사를 비롯해 의과대학생 및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 부윤정 교수, 대한소아외과학회 최우수연제상 수상

소아외과 부윤정 교수가 ‘한국 소아외과 의사의 근무실태’를 주제로 한 연구를 인정받아 제 32회 대한소아외과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연구 조사 결과, 소아외과 의사가 병원의 진료실적 보충 등의 이유로 타진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홀로 근무하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매일 응급콜 당직근무를 해야하는 병원도 절반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윤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소아외과의 열악한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라며 “향후 열악한 소아외과 보험수가 개선 및 소아외과 전문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개선 등의 노력이 있어야만 소아환자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울 중암/성북 경찰서와 MOU 체결

6월 30일 오전 11시 의과대학 본부회의실에서 서울 중암경찰서(서장 임흥기), 성북경찰서(서장 이인상) 두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세 기관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여러 범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내 정신질환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자 보호조치와 더불어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이러한 응급상황을 대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24시간 상주하며, 즉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유 병상도 상시 유지할 예정이다.



## 삼복더위 이기는 중복 특집 3종 세트

7월 27일 중복을 맞이하여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이기형)이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중복 특집 3종세트는 더위에 빠질 수 없는 수박과, 삼계탕,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다.

특히 이기형 원장은 전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더위에도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격려와 함께 직원들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했다.

한 교직원은 “계속되는 더위에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었는데, 중복에 오히려 입맛도 살고 기운도 되찾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휴대폰 메인화면에 카드뉴스를 등록해주세요!

휴대폰 기종별 등록방법

iPhone

1. [als.kumc.ac.kr/cm](http://als.kumc.ac.kr/cm)에 주소로 접속해주세요!

2. 화살표 모양 버튼 클릭

iPhone

3. [홈 화면에 추가] 버튼 클릭

Galaxy

4. [홈 화면에 추가] 버튼 클릭

Galaxy

5. [홈 화면에 추가] 버튼 클릭



더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 고대병원을 등록해주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카드뉴스 이벤트 성료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이기형)이 모바일맞춤형 콘텐츠인 카드뉴스를 알리기 위해 안암병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바로보기 이벤트’를 개최했다.

8월 1일 오후 12시 1층 직원식당 앞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휴대폰 메인화면에 고려대 안암병원 카드뉴스 사이트를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등록하면 시원한 커피음료를 주는 이벤트로 진행됐다.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교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휴대폰 메인화면에 고려대 안암병원 카드뉴스 아이콘을 등록했고 약 1,000여명의 교직원이 이벤트에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벤트에 참여한 교직원은 “주소를 직접 치지 않아도 이제 휴대폰 메인화면에서 바로 카드뉴스를 볼 수 있어 편

리하다”며, “더위에 지친 월요일인데 이벤트 덕분에 기분도 환기하고 시원한 커피 음료도 받아서 활기찬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오픈한 고려대 안암병원 카드뉴스는 ‘건강한 새 삶을 더하다, Life+’의 의미를 담고 고대 안암병원의 스토리를 전 연령층에 전하고 있다.

간편하고 쉽게 건강정보를 볼 수 있는 ‘건강플러스’, 안암병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안암인사이드’, 이웃·지역사회와 희망을 나누고 사회공헌 실천이 담긴 ‘나눔 공감’, 고대 안암병원 의료진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명의이야기’ 등 4가지 카테고리에서 건강 지식 과 정보뿐 아니라 유머 넘치는 일상생활 팁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진료시간표

[콜센터 : 1577-0083]

●:선택진료자격의(지정) ○:선택진료자격의(비지정)

부서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과목		
소화기 센터  3층  ☎ 6551	● 김창덕	수금	월목	체담도질환(담석, 담낭염, 담도암, 췌장염, 췌장암)		
	● 엄순호	화수목	수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 전훈재	화목금	금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 이홍식	월목		체담도질환(담석, 담낭염, 담도암, 췌장염, 췌장암)위장관질환		
	○ 진윤태	월수금	수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염증성장질환		
	● 서연석	월목	월금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토오전2주]		
	● 금보라	월	수목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 김은선	수	월금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염증성장질환[토오전1주]		
	● 최혁순	화	화목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임선영	연수중 (2016.3.~2018.2)				
	김승한	토	수	위장관질환 [토오전]		
	이재민	화	금	위장관 및 간, 췌담, 모든질환		
	유인경	토	월	위장관질환 [토오전]		
	김태형	토	화목	간질환 [토오전]		
	최병광	토		위장관질환 [토오전]		
	이한아	토		위장관질환,간질환 [토오전]		
박상정	토		위장관질환,간질환 [토오전]			
내과   3층  ☎ 5410	신장	● 조원용	수금	월수	고혈압, 신장질환	
		● 조상경	월화목	목	고혈압, 신장질환	
		김명규	해외연수(2015.8.10.~2017.8.31.)			
		임성윤	금	화	고혈압, 신장질환	
		양지현	화토	금	고혈압, 신장질환 [토오전:2주]	
		나영주	목토	월	고혈압, 신장질환 [토오전:4주]	
	신장이식 클리닉	김명규	해외연수(2015.8.10.~2017.8.31.)			
		감염	● 김민자	수금토	월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토오전:3주]
	● 손장욱		월목토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토오전:4주]	
	● 윤영경		화토	수금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토오전:2주]	
	김중훈		토	화목	감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토오전:1주]	
	혈액	● 박용	토	목	빈혈, 자반증(명)클리닉 [토오전:2,4주]	
		강가원		금	빈혈, 자반증(명)클리닉	
	류마티스	○ 지종대	목금토	월수금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토오전:2,4주]	
		○ 이영호	월화수토	화목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토오전:1,3주]	
	내과일반의		월화수목금		내과질환	
당뇨센터 (내분비내과)  3층  ☎ 5421	○ 최동섭	화목금	목	내분비		
	● 김신곤	월수	수	내분비		
	○ 김희영	화	월수금	내분비		
	○ 안지현	월목토		내분비 [토오전:2주]		
	○ 김남훈	금토	화목	내분비 [토오전:1주]		
	김경진		화금	내분비 [토오전:4주]		
암 센터  2층  ☎ 5980	중앙 혈액 내과	○ 김열홍	연구년(2016.3.1~2016.8.31)			
		● 신상원	수목	화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 김병수	화금	수	혈액암(백혈병, 림프증, 다발성골수증)골수이식, 혈액질환	
		● 박경화	월목	화	유방암, 부인과암, 비뇨기암	
		● 박용	월		혈액암(백혈병, 림프증, 다발성골수증)골수이식, 혈액질환	
		최윤지	화금	목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장원진	화	수금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강가원	수	월	혈액암(백혈병, 림프증, 다발성골수증)골수이식, 혈액질환	
		최정윤		월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문선영		목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방사선 종양 학과 5516	○ 김철용	화목금	월목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종양학	
		● 박영제	화수	월~목	뇌종양, 부인암, 비뇨기암, 폐암, 종양학	
		이남권	월수	화수금	림프증, 소아암, 육종, 유방암, 갑상선암, 전이암, 종양학	
		일반의		화금	종양학	
심혈관 센터   4층  ☎ 6700	순환기	● 심완주	월목토	화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수요일은 초진만) [토 오전:3주]	
		● 김영훈	화금토	화금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토 오전:1주]	
		○ 임도선	화		협심증 임상연구, 심혈관중재시술(화오전:초진만)	
		● 유철웅	월수목토	수	협심증, 판막질환, 심혈관중재시술, 말초혈관(목:말초혈관질환만)	
		● 홍순준	목	화목	협심증, 심혈관중재시술,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박성미	연구년(2015년9월1일~)			
		○ 최종일	수목토	월	부정맥, 돌연심장마비, 실신, 유전성심장질환 [토오전:2주 초진진료]	
		● 박재형	수금	수금	협심증, 고지혈증, 심혈관중재시술	
		● 심재민	월금토	화	빈맥, 서맥, 심방세동, 실신, 급사, 심박동기&제세동기 [토오전:3주]	
		김미나	수토	금	심부전, 심장이식,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토오전:1,3주 초진진료]	
		● 주형준	월		협심증, 심혈관중재시술, 고지혈증, 고혈압	
		○ 노승영	화	금	심장질환, 고혈압,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특수 클리닉	조재영		월금	협심증, 고지혈증,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이광노		목	심장질환, 고혈압,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이승훈		화	심장질환, 고혈압,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박희순		월수	심장질환, 고혈압,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백용수	금		심장질환, 고혈압,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고혈압, 심부전클리닉			심완주, 박성미, 김미나	
		부정맥클리닉, 인공심박동기 & 제세동기클리닉			김영훈, 최종일, 심재민, 노승영, 이광노, 박희순, 백용수	
		홍통 클리닉			임도선, 유철웅, 홍순준, 박재형, 주형준, 조재영, 이승훈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 클리닉			유철웅	

부서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과목
호흡기내과 2층 ☎ 5111		● 인광호	월수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 이상엽	월화목	수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 이은주	연구년(2016.8.1.~2018.3.31.)		
		정원재	금	화금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최수인		월목	호흡기, 폐암,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흉부외과 2층 ☎ 5436		● 김광택	화수		폐, 기관지, 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 선정	토		심장, 혈관외과, 인공심장 [토오전:2주 초진불가]
		● 이성호	목	화	흉곽기형, 폐, 식도질환, 하지정맥류
		● 손호성	월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 김태식		화	중환자관리, 심장이식, 심장 및 폐, 늑막질환
		● 정재승		월수	ECMO(체외막산소화), 말초혈관질환, 부정맥수술, 선천성심장수술
		● 정재호		목	흉부외상, 흉막질환
		이은주		금	일반흉부(폐)
		한정옥		금	일반흉부(심장)
외과 3층 ☎ 5401	위장관	○ 김중석	수	월	위암, 상부위장관질환
		● 박성흠	월	목	위암, 상부위장관질환
		● 박성수	금	수	위암, 상부위장관질환, 비만대사수술
	간담췌	○ 송태진	목		간, 담도, 췌장질환
		● 김동식	화금		간, 담도질환, 췌장질환, 간이식
		● 유영동	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 한재현	수	월	간, 담도, 췌장질환
		윤영인	금	수	간, 담도, 췌장질환
	이식혈관	● 정철웅	화목	목	장기이식(신장, 췌장), 혈관질환, 췌장질환, 하지정맥류(목 오전은 신장이식 환자만 진료)
		● 전흥만	월금	금	혈관질환, 하지정맥류, 장기이식(신장, 췌장)
소아	○ 부윤정	해외연수(2016.9.1.~2017.8.31.)			
대장항문외과 2층 ☎ 6420	● 김선탄		월수	대장, 직장, 항문질환	
	● 김진	금	화	대장, 직장, 항문질환	
	● 광정면	해외연수(2016.8.8.~)			
	○ 백세진	월화	목	대장, 직장, 항문질환, 여성전문, 염증성장질환	
	강동우	수	금	대장, 직장, 항문질환	
	양인수	목		대장, 직장, 항문질환	
유방센터 ☎ 6670	유방내분비외과 성형외과	● 배정원	월목	화	유방암 및 갑상선암
		● 정승필	화수금	월수	유방암 및 갑상선질환
		● 윤을식		목	유방재건성형수술
정형외과 3층 ☎ 5430	● 이순혁	수	월	소아정형외과, 사지연장술, 족부	
	○ 박종훈		화	종양, 외상(근골격계종양)	
	서승우		화	척추측만증, 소아척추[화오후격주진료:2,4주]	
	● 박종웅	월	수	수부외과, 미세재건외과, 수부및상지외상, 말초신경질환(악성흑색종클리닉, 손목통증클리닉, 수부외과 미세재건외과 클리닉)	
	● 한승범	월목	목	인공관절(무릎, 고관절), 고관절골절, 외상	
	● 정웅교	화금	화	어깨, 팔꿈치, 스포츠의학(상지) [토오전:1주]	
	● 박시영	수	월수	척추종양, 허리, 목디스크, 척추협착증, 골다공증, 외상학, 외상성척추질환, 척추측만증 및 변형교정(화오전:11시이후)	
	○ 장기모	화목토	목	슬관절, 슬관절관절경술, 스포츠외상, 인공슬관절 치환술, 인대재건술 [토오전:4주]	
	장우영	토		[토오전:1주]	
	박지현	토		[토오전:2주]	
	이동기	토		[토오전:3주]	
	황현정	토		[토오전: 주]	
신경외과 3층 ☎ 5550	일반의		수금	외상	
	○ 정용구	수목	화	뇌종양, 척추종양, 뇌혈관질환, 두통	
	● 박정율	월	월목	통증외과, 척추질환, 신경기능이상, 노인질환	
	○ 조태형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줄기세포치료	
	● 강신혁	월목	목	뇌종양, 소아뇌질환, 뇌혈관질환, 두통, 안면경련	
	● 이장보	화	화	척추질환, 척추종양	
	박동혁	연구년(2015.8.1.~2016.8.31.)			
	● 박경재	화금	수	뇌혈관 조영술 및 뇌 두경부 중재시술, 뇌혈관질환(뇌동맥류), 뇌종양,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허준석	파견(2016.2.22.~2017.2.28.)			
일반의		금	두부외상, 척추질환		
성형외과 3층 ☎ 5440	● 박철		월금	귀성형, 소이증, 매몰귀	
	안덕선		화수	손저림증, 화학박피	
	○ 박승하	금	화	소아기형, 안면마비, 턱성형, 눈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피부성형, 주름성형, 혈관종	
	이병일	연구년(2015.10.1.~)			
	● 윤을식	화목		유방재건및성형, 지방성형, 눈, 코, 주름성형, 수부재건, 암재건, 레이저	
	조희은	토	월수목	악안면외상재건, 수부외상, 피부암, 화상및급만성창상, 레이저 [토오전2주]	
	황나현		화목	미용(성형, 흉터, 레이저, 보톡스, 필러)피부암, 악안면재건성형, 성전환수술, 모발성형	
	김진우	월수토		악안면외상재건, 화상및급만성창상, 레이저, 수부외상 [토오전4주]	
	일반의	월수금토	화목금	외상 [토오전:1,3,5주]	
통증센터 3층 ☎ 5529	● 이해원	월목		통증관리	
	● 박지용	수	월수목	통증관리	
외국인진료센터 ☎ 6896	최새롬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 김진용		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통합의학센터 ☎ 6930	○ 이성재		수	심장건강, 뇌정신건강, 피부건강, 여성건강, 암건강, 만성통증관리, 학습장애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 여름철 기저귀 발진! 우리 아이는 문제없을까?

덥고 습한 7-8월 환자 몰려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초보맘 이 모씨(32)는 얼마 전 아기의 항문 주위가 붉어진 것을 발견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며칠 후, 결국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증세만 더욱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기저귀 피부염(발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기저귀 피부염이란 기저귀의 습기나 마찰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기저귀를 차는 영유아의 회음 부위가 수분에 의하여 피부가 짓무르고 대소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극 물질에 의하여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저귀 피부염(L22)의 작년 기준 환자 수는 총 40,152명이었으며, 그중 7월(3809명), 8월(3808명)으로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환자 수를 확인할 수 있어, 특히나 덥고 습한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여름철에 기저귀를 차는 아기의 경우 쉽게 발생할 수 있다”며, “대수롭게 생각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거나 이차감염이 일어나 아기가 많이 아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기저귀 피부염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 기저귀를 자주 갈아 청결 유지

기저귀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저귀를 자주 갈아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저귀를 갈 때는 우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애고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손가락 3~4개가 들어갈 정도로 험렁하게 기저귀를 입히는 것이 좋다. 흡수력이 뛰어난 일회용 기저귀의 사용이 추천된다. 또한 마른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엔 세탁 시 세제를 충분히 헹구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땀을 흘릴 경우 가볍게 물로 씻기

아기가 땀을 흘리는 경우 베이비파우더를 발라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땀구멍을 막을 수도 있어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화아연이 있는 된연고(paste)나 바셀린 등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고제의 도포가 추천된다. 또한, 물티슈와 비누는 사용빈도를 낮춰 사용하도록 하고 물로 씻긴 후에는 물기를 잘 말리고 기저귀를 채울 수 있도록 한다.

### 잠시 동안 기저귀 벗겨 놓기

요즘과 같이 무더운 날씨엔 아무리 실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기 마련이다. 그에 따라, 기저귀를 매일 같이 차는 아기들의 피부는 답답하고 통풍도 잘 안되어 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종종 시간 날 때마다 기저귀를 벗겨 놓으면 피부 온도도 낮춰 줄 뿐만 아니라 아기의 피부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 도움말 : 피부과 최재은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최재은교수는 “특히 덥고 습한

## 희망을 전합니다

희망우체통에 소망을 담은 편지를 넣어주시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1년 후 배송해 드립니다.

질병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여러분께  
디딤돌이 되는 희망우체통입니다.



\* 희망우체통은 병원 8층 86병동에 있습니다.

진료예약 1577-0083